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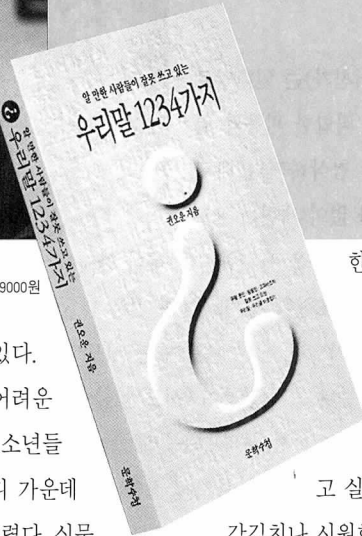
어느 교열쟁이가 연 ‘우리말 청문회’

《알 만한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1234가지》 쓴 권오운씨



권오운씨

문학수첩/A5신/352면/9000원



우리말이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난무한다. 지하철에서 청소년들의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열 마디 가운데 두세 마디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바른말을 앞장서서 가르쳐야 할 교과서조차 우리말을 잘못 쓰고 있다. 여기에 권오운씨(59, 시인)가 ‘칼’을 댔다. 그가 펴낸 《알 만한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 1234가지》(문학수첩)는 방송, 교과서, 문학작품 등에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을 일일이 지적한 책이다.

전문가들조차 우리말 잘못 쓰고 있어

“지난 15년간 ‘교열쟁이’로 일해 왔습니다. 그 동안 잡지와 신문, 문학작품, 방송 등을 보며 잘못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꾸준히 정리해 왔죠. 오늘이 제 작업이 생판 뺄까만 안됐으면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에 나타난 우리말 오용 사례를 다뤘다.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해야 할 아나운서들도 심심찮게 틀린 말을 쓰고 있다. 1996년 9월 24일에 방송된 <아침마당>의 한 출연자가 ‘농뽕이’란 말을 쓰자 진행자는 “미국에 사는 분이 일본말을 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씨는 ‘농뽕이’는 일본어가 아니라 ‘일 따위를 하지 않으려고 게으름을 피우며 요리조리 빠진다’는 뜻의 우리말 속어라고 지적한다. 정확

한 문장을 써야 하는 신문기자도 실수를 한다. 1997년 11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총각무에 관한 기사가 <화성 알타리무>라고 실렸다. 기사를 쓴 기자는 “총각김치나 시원한 물김치의 재료가 되는 알타리무는 육질이 단단하고…”라고 썼다. 하지만 알타리무는 방언이고 표준말은 총각무다.

“전문가들도 토박이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5년 《출판저널》에는 ‘우리보다 더 소중히 우리말을 다루는 외국사전’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실렸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Kono’라는 말이 올랐는데, 글쓴이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다’라고 했더군요. 명색이 ‘한국어 편찬실장’이라는 직함을 단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고누’는 우리 전통놀이입니다.”

‘말 다루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인들조차 그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김수영, 박경리, 이청준, 고 은, 박완서, 황석영, 오정희, 이문열, 이윤기 등의 대가급 작가에서 신경숙, 하성란, 은희경, 구효서, 조경란 등 젊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단의 내로라하는 작가 50여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제가 지적당한 어느 작가는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항변하더군요. 하지만 언어 역시 하나의 약속인 만큼 사용하는데 엄격해야죠. 잘못된 줄 모르고 듣거나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옳다고 믿어버립니다.”

우리말을 가장 정확하게 써야 할 사람들조차 우리말을 잘못 쓰고 있다. 권오운씨가 펴낸 이 책은 문학 대가들의 문장부터 방송, 교과서, 사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의 오용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권씨는 우리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부터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다.

권씨는 우리말이 오용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잘못된 교과서에서 찾는다. 바른 우리말의 교본인 교과서조차 틀린 말 범벅이다. 이런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통해 우리말을 배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말을 잘못 쓰는 것은 당연하다. 사전도 마찬가지다. 사전이란 단 한자의 오자와 탈자도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전은 잘못된 말을 버젓이 올려 놓고 있다. 권씨는 ‘교과서 청문회’라고 열자고 제안한다.

틀린 말 버젓이 실고 있는 국어교과서

“교과서를 통해 틀린 말을 배운 아이들이 틀린 말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어나 비어, 속어 사용은 둘째 문제죠. 분명 제대로 된 말인데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의사를 말해야 할 데다 남이 이야기하는 듯한 어투인 ‘~같아요’를 붙일 때입니다. 또 아이들은 무슨 말이든지 앞에다 ‘있잖아요’를 붙이고 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국어교과서에 이런 말을 써도 된다고 버젓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권씨는 196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해 시집 《원님전상서》(청한문화사)를 상재한 바 있는 시인이다. 시를 쓰는 일도 우리말을 갈고 닦는 작업이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우리말을 보살피는 ‘시어머니’ 역할 또한 시 쓰는 것만큼이나 더 없이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 최갑수 기자